

## 신년사



지난 한 해 동안 조선대학교병원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전 교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병신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2017년 정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명을 알리는 기운찬 닭의 울음소리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시는 일마다 괄목할 발전이 있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로 개원 46년을 맞이하는 조선대학교병원은 사망률을 낮추고, 기대수명을 높이는 의료서비스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질병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예방의학적 헬스케어 3.0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은 2017년 1월 신관 외래 및 병동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내과 중심의 외래진료공간과 최신 음압치료병상과 감염격리병실을 도입하고 응급병동 및 응급중환자실을 포함한 150병상의 내·외과 입원병실을 확충하여 편안하고도 쾌적한 공간에서 치유가 가능하도록 전 교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그동안의 성과가 결실이 되어 환자의 편안과 병원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밀조기진단으로 예방의학적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료기술사업(미래창조과학부)으로 연구·의료창업**을 진행하고,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보건복지부) 운영**을 본격화하여 환자·보호자, 치매의료 종사자들의 교육·홍보·네트워크를 통해 치매 걱정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 최우선 병원, 고객만족 병원'을 위해 24시간 교수가 진료하는 광주광역시응급 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으로 간호사의 따뜻한 보살핌, 병원 모든 직원의 친절함 응대를 통해 신체의 건강은 물론 마음까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선대학교병원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 지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2일

조선대학교병원장 **이상훈** 배상



## 러시아 동시베리아 의사 및 과학자 팸투어

러시아 동시베리아에 위치한 부랴트자치공화국,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지역의 의사 포함 기초과학자 15명(러시아 자연생태의학 지리경제학 연구자)은 11월 22일 조선대병원을 방문하여 미팅 및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단은 병원 본관 8층 집담회의실에서 소금영 부원장을 비롯하여 노영일 진료부장, 김금희 간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팅이 이루어졌으며, 김경종 대외협력실장의 병원 전반적인 소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암센터 및 방사선종양치료센터, PET-CT센터 등 곳곳을 둘러보며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료진과 암 연구 및 진료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부랴트자치공화국 보건부 과장인 Natasha Gomboev 의학박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조선대병원의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 및 진료에 대하여 감명을 받았고 특히 암센터의 선진의료시스템에 깊은 관심이 간다”며 “추후 조선대병원과의 관계가 발전되어 의료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캄보디아 캄퐁스퉁 주지사 일행 방문



12월 7일 베이 삼남 캄보디아 캄퐁스퉁 주지사 일행을 맞이하여 이상홍 병원장·소금영 부원장을 비롯해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미팅 및 원내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미팅 및 팸투어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에 파견되는 우리병원 의료봉사단에 전하는 감사의 인사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당부하고 약속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경종 대외협력실장의 병원 전반적인 소개 후 단체사진 촬영 및 선물 증정식을 가졌으며, 병원 내 관절센터 및 재활치료센터를 방문하여 선진 의료장비와 시설, 진료에 대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이상홍 병원장은 “이번 캄보디아 주지사 일행의 팸투어를 통해 우리병원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캄보디아에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보내 캄보디아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카자흐스탄 알마티 에이전시 팸투어

12월 1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에이전시 9명이 방문하여 미팅 및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단은 소금영 부원장 외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본관 10층 회의실에서 만남이 성사됐으며, 가벼운 티타임과 함께 김경종 대외협력실장의 전반적인 병원소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환자실, 심혈관 센터, 하이브리드 혈관센터, PET-CT 센터, MRI촬영실, 수술실 등 병원 곳곳을 견학하며 첨단 의료장비 및 시설과

선진 진료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방문단의 보즈글란 사드갈린은 “최첨단 의료시설과 진료환경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카자흐스탄에도 조선대병원같이 선진 의료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의료상담을 진행하고, 광주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 한-몽/한-러 연수프로젝트 수료식 성료

● 한-몽, 한-러 의료의 가교 역할 기대...의료협력 강화 ‘속도’

11월 24일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한몽-한러 연수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몽골 의료진 5명과 러시아 의료진 2명의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연수프로젝트에 참여한 의료진은 정형외과 2명, 이비인후과 2명, 감염내과 2명, 흉부외과 1명 총 7명으로 조선대병원의 우수한 의료진이 최신 의료기술 교육, 첨단 의료장비 실습과 멘토링을 담당하였고, 각종 심포지엄, 학술대회 참가는 물론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수료증을 받은 몽골과 러시아 의료진은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조선대병원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상홍 병원장은 “2달 과정의 연수를 무사히 마친 연수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다”며 “본국에 돌아가면 의료진들의 역량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와 몽골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전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해외환자 유치에 본격 나서고 있다.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 연방 부리야트 자치공화국 울란우데와 이루크츠크,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했다.

이번 일정에는 노영일 진료부장(소아청소년과 교수), 김경종 대외협력실장(외과 교수), 강상인 박사(미래환경연구본부 선임연구원)가 참여했으며, 부리야트 의사협회, 부리야트 주립대학 의과대학, Selenga District, 현지병원(구즈노조르스크 중앙지역병원, 제2시립병원, 제4시립병원, 부리야트 Republican Clinical Hospital 및 암센터, Children Republican Clinical Hospital) 등을 방문했다.

이 중 부리야트 의사협회, 부리야트 주립대학 의과대학, Selenga District, 현지병원(구시노조르스크 중앙지역병원, 제2시립병원)과 보건 의료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부리야트 주립대학 의과대학에서는 의과대학의 현황과 의학교육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3박 4일

간의 일정으로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와 함께 몽골을 재방문하여 그동안 다져온 관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고 새로운 활로도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펼쳤다.

현지병원(몽골 제1병원, 아가페병원, EMJJ병원, 그랜드메드병원, 인터메드병원) 방문 및 업무협의, 라이브 수술 시연, MCS 및 JIGUUR GRAND 그룹 방문 및 미팅, 현지 유치업체(5개 기관) 방문 및 협약체결, 현지 광고회사 미팅 등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 광주시 장애인체육인 무료 의료봉사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회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와 함께 11월 9일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광주시 장애인체육인을 대상으로 광주 서구 풍암동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의료봉사단은 내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의료진과 간호사, 약사, 행정 등 2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재활의학과 인력은 호남권역 재활병원에서 파견됐다.

혈압 및 당뇨 등 기본검사와 진료 및 약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따뜻한 음료 및 다과를 제공하며 사랑나눔의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외국인 근로자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광주외국인복지지원센터(센터장 이복남)와 함께 11월 19일 나주동곡농협 2층 대강당에서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하고 언어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의료봉사는 정형외과, 안과, 가정의학과 의료진과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행정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외국인 근로자 60여명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등 기본검사와 진료상담 및 물리치료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진료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 이었다.



## 하나원·광주새터민 건강복지센터와 의료지원 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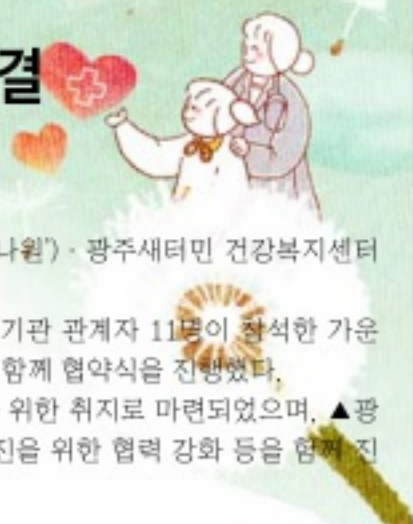


12월 13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광주새터민 건강복지센터와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홍 병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양측 기관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 소개와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열띤 논의와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전남 지역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광

주·전남 지역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진료비 경감 및 진료 편의 제공 ▲지역 사회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 (사)희망나무 주관 봉사대상 단체부문 수상

12월 6일 광주 라마다프라자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희망나무 송년의 밤 및 봉사대상 시상식'에서 이상홍 병원장과 김경종 대외협력실장, 이준영 기획실장 등 희망나무 관계자 및 후원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대상 단체부문을 수상했다.

이 대상은 사단법인 희망나무와 함께 캄보디아 및 네팔 광주진료소 건립과 해외의료봉사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2014년 6월부터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인 4만여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인술을 펼쳐오고 있으며,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수술이 어려운 4명의 환자를 초청하여 무료수술을 해주는 등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정형외과 이상홍 교수팀, 대한고관절학회 학술상 수상



정형외과 이상홍 교수팀(이상홍, 조승환, 이현준)은 11월 25일 서울 건국대병원에서 열린 제31차 대한고관절학회 정기총회에서 '대퇴 골절의 내고정술 후 골절 양상 및 합병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 신체 골절중에서 가장 먼저 응급 수술을 요하고 치료결과도 심각한 '대퇴골 경부 골절'에 있어서 골절 양상과 골유합 및 합병증 등과의 관계'를 비교 관찰하는 논문으로 향후 환자 내원시 수술의 시기 및 방법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가 11월 26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제26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거골 경부 골절 후 발생한 부분 무혈성 괴사의 3차 원적 부피분석'이라는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족부에서 치료가 어려운 골절인 거골 경부 골절을 치료하고 그 합병증인 무혈성 괴사를 술후 MRI와 3D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무혈성 괴사의 발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지침을 주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혀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족부질환과 스포츠 손상의 권위자로 지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이 교수는 과거에도 족부족관절학회에서 우수논문상과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신종 감염병 대비 위기대응 모의훈련 성료

12월 14일 2층 하중현홀에서 이상홍 병원장을 비롯한 각 부서 팀장급 교직원들을 포함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크게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업무 분담 체계 확인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응급실 방문 시 대처 방안 ▲응급격리병상으로 입원 시 이송로 확인 ▲피드백 과정을 거쳐 대비계획의 적절성과 순응도 평가 및 보완 순으로 나누었다.

또한, △개인 보호구 착·탈의 교육 실습 과 상황별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응급 현장을 구현해내어 △조별 도상훈련도 병행하였다.

소금영 부원장은 "신종 감염병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대응능력이 한층 더 향상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를 내다보고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 교육과 훈련 및 홍보를 통하여 원칙을 지키면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희귀난치병 어린이 성금 전달식’ 성료

12월 5일 이상홍 병원장·소금영 부원장 외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MBC 최영준 사장·사랑방미디어 조경선 사장·국제로타리3710 박상근 총재·아름다운가게 이계양 광주전남본부 대표·지속발전협의회 최봉익 공동회장·청소년활동진흥센터 김성훈 소장 등과 ‘희귀난치병 어린이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10월 15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린 ‘제13회 빛고을 나눔장터’행사를 통해 모금된 것으로 시민들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고 수입금 50%를 기부한 금액으로써 약 1600여만원이 조선대병원으로 기부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이상홍 병원장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며 “광주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린이 환

우들에게 한줄기 빛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약 250여명이 참가하고 2~3만 명의 관람객이 유치된 ‘제13회 빛고을 나눔장터’행사에 참여하여 광주 시민에게 심폐소생술 시범 및 교육, 건강한 경주를 위한 운동요법과 올바른 자세 교육’을 실시하여 호평을 받았다.



## KTcs 광주사업단 소아암 환자 후원금 전달



12월 8일 KTcs 광주사업단으로부터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노영일 진료부장·김경종 대외협력실장·노지숙 영상의학팀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KTcs 이덕호 부장·KTcs 유선센터 고은영 센터장·KTcs 무선센터 심선경 센터장을 포함한 9명의 KTcs 광주사업단과 만남이 이뤄졌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각 센터(유선센터, 무선센터, 114안내센터)에서 바자회 행사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과 직원들이 기부한 금액으로 만들어 졌다.

노영일 진료부장은 “이번 후원금을 전달해주신 KTcs 광주사업단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며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소아암 환자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로부터 자비의 치료금 전달 받아



12월 15일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 스님)로부터 ‘2016년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서 자비의 치료금 2백만원을 전달 받았다.

문봉주 홍보팀장이 이상홍 병원장을 대신해 전달 받았으며, 이날 전달된 치료금은 저소득층 환자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기업체 및 단체, 개인의 후원금을 모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998년에 창립됐다.

### 방송 보도

#### ▶ 11월 방송내역

- 11/1 평화방송 행복한 라디오 '100세 시대! 건강하십니까?'  
감염내과 윤나라 교수 - 인플루엔자
- 11/2 KBC 건강토크쇼 '내몸을 부탁해'  
신경과 추민성 교수 - 뇌졸중
- 11/8 평화방송 행복한 라디오 '100세 시대! 건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최지윤 교수 - 비중격 만곡증
- 11/8 MBC 생방송 '빛날'  
외과 김유석 교수 - 유방암
- 11/9 SBS생방송투데이  
순환기내과 고영업 교수 - 심혈관질환 환자 관련 인터뷰
- 11/15 평화방송 행복한 라디오 '100세 시대! 건강하십니까?'  
마취통증의학과 김동준 교수 - 진정요법
- 11/17 MBC 1분건강정보  
정형외과 김동휘 교수 - 퇴행성 관절염
- 11/22 평화방송 행복한 라디오 '100세 시대! 건강하십니까?'  
영상팀 천인애 영상사 - 임상영상

#### ▶ 12월 방송내역

- 12/3 EBS<나눔0700>  
방사선종양학과 장지영 교수 - 윤활막육종 환자 관련 인터뷰
- 12/14 KBC 건강토크쇼 '내몸을 부탁해'  
소화기내과 조주연 교수 - 간질환
- 12/23 KBS라디오정보시대  
비뇨기과 임동훈 교수 - 과민성 방광의 원인과 증상 및 치료법
- 12/29 SBS생방송투데이  
외과 김권천 교수 - 유방암 환자 관련 인터뷰
- 12/30 KBS라디오정보시대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 - 족저근막염



# 피부 건조증



피부과 신봉석 교수

피부 최대의 적인 겨울이 다가오면서 유난히 몸을 붉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 그 원인은 피부 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 때문이다. 피부 건조증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을 보이는 피부 상태를 말한다.

## 증상 및 발생원인

정상피부가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적정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수분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부의 각질층은 피지(기름)를 분비하고, 이 피지막이 수분 증발을 막아서 피부 안쪽에 수분을 머금도록 해준다. 만약 이 피지막이 없어지면 피부는 말라버리며 가려움이 유발되는데, 이러한 가려움은 보통 피부건조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가을과 겨울같이 건조하며 실내온도가 상승하는 계절에 심해진다.

피부 건조증은 예년에는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노년층에서 주로 생겼으나, 요즘에는 과도한 실내 난방과 건조한 실내 환경, 전기담요, 잘못된 목욕 습관들로 인해 청·장년층에도 늘고 있다. 드물게는 내과적 질환으로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등의 호르몬 이상, 만성 신부전이나 빈혈, 대사성 질환, 백혈병이나 림프종 등의 암이 있는 경우에도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피부는 가려운 곳을 긁으면 더 심하게 가려움을 느끼는 특징이 있으므로 가려움으로 인해 상처가 생길 때까지 긁으면 흉반, 균열, 궤양, 색소침착 등과 함께 피부에 손상 2차세균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피부의 수분을 주위로 뺏겨 피부가 더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자주 피부를 긁으면 원래의 피부병이 악화하게 된다. 요즘 같이 추운 계절이 되면 중년층은 온천이나 사우나, 뜨거운 물에 목욕을 자주 하는데 여기에 세정력이 강한 비누와 함께 때를 밀게 된다. 과도한 비누 사용이나 때를 자주 밀는 습관은 피부 각질을 손상시켜 목욕 후 급격히 수분 손실을 일으키고, 가려움을 유발하게 된다.

## 치료법

피부 표피층의 수분을 증가시켜주는 환경 및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하다. 환자 스스로 기본적인 관리, 생활습관 교정이 필수적이며 전문의 진단을 통해 자극 물질 혹은 원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파악하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보습제 도포를 생활화하고, 스트레스가 습진성 병변을 악화시키므로, 정서적 안정도 필요하다.

전문적인 치료는 국소치료(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전신치료(증상이 심하고 쉽게 재발하는 경우)로 나뉜다. 국소치료는 냉습포요

법, 국소 스테로이드, 국소 면역조절제 등이 있다. 전신치료는 경구 항히스타민제, 전신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레티노이드 수용체 길항제, 광선치료 등이 있다.

국소 스테로이드제는 연고, 크림, 로션 형태가 있으며, 사용 강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소양증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 후 전문의와 상의 후 발라야 한다.

또한 환자는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피부로부터 수분손실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소금물에 담그거나, 목욕물에 팥유를 타서 사용하면 증상 호전에 효과가 있다. 피부가 건조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고 때를 밀지 않아야 하며, 목욕 용품은 일반 고체비누보다 중성, 약산성 비누를 사용한다.

외용 스테로이드제와 보습크림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외용 스테로이드제를 도포하고 5~10분 후 보습크림을 바르며 부드러운 면소재의 옷을 착용하고, 적절한 실내습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피부건조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예방법

가려움증은 특히 가을, 겨울과 같은 건조한 계절이나 밤 시간이 되면 더욱 심해지는데, 심한 가려움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생활의 불편함과 숙면 방해를 유발하므로 빠른 치료와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평소 충분한 보습제 사용과 수분섭취 등의 관리가 중요하며 가려움이 심할 때는 긁는 것보다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겨울철 피부는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잦은 목욕이나 사우나, 찜질방, 강한 세정제 사용, 때를 밀는 등의 무리한 자극을 피하고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건조한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온도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고, 가습기를 사용하면 쾌적한 피부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커피·홍차·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술·탄산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몸에 있는 수분을 빠져나가게 하고,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악화될 수 있어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직이나 털과 같은 자극적인 직물은 피부를 자극해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실내온도는 너무 덥지 않게 18~20도 유지하며 가습기를 사용하고, 가습기가 없을 때에는 실내에 젖은 빨래를 널거나 물수건을 놓아두는 것이 좋다.





병원  
소식

CHOSUN UNIVERSITY HOSPITAL



## 조선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심정지 환자 생명 구해



조선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지난 10월 30일 광주에서 개원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40대.남)는 배우자와 함께 운동을 하던 중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은 지체 없이 김모씨를 구급차를 이용해 조선대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

긴박했던 상황이었지만 구급차에 동승한 김모씨의 배우자도 의사였기에 바로 긴급 심폐소생술인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실시했고, 구급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대병원에 도착했다.

심정지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조선대병원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할 준비가 이뤄졌고, 환자가 도착하기 전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등 의료진과 간호사 그리고 체외순환사(에크모 운용 및 관리) 등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이날 오후 6시쯤 조선대병원에 도착한 김모씨에게 응급의학과 선경훈 교수와 의료진들은 응급의료센터 내 소생실에서 30분간 CPR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심장이 뛰지 않았다. 심근경색은 시간을 다투는 질환이기에 함께 있던 흉부외과 정재한 교수, 배대양 체외순환사는 응급의학과 의료진과 함께 지체하지 않고 바로 에크모를 활용해 ECPR을 시행했다.

**설명 :**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화장치)란 폐나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환자의 폐를 밖으로 빼내 산소를 넣어 물에 재주입하는 장치로 혈중 산소포화도를 높여주고 체내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인공 폐, 인공 심장 역할을 하는 치료 장치이다.

대퇴정맥에서 피를 뽑아 대퇴동맥으로 넣어 주며 ECPR을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적으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김모씨는 심장혈관센터 혈관촬영실로 옮겨져 응급으로 순환기내과 박근호 교수의 집도하에 관상동맥 좌전하행지에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Stent) 삽입술이 이뤄졌다.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은 뇌혈관과 신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김모씨에게 저체온요법으로 뇌 기능을 돕도록 유도했고, 지속적 정정맥 혈액투석여과법(CRRT)을 통해 신장의 기능을 돕도록 조치했다.

**설명 :** 치료적 저체온 요법(Therapeutic hypothermia)은 심정지 환자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을 때 중심체온을 32℃~34℃ 정도(정상 체온은 약 36.5℃)로 유지시켜 뇌의 소생을 돕는 치료법이다.

다음날 31일 김모씨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전실 됐고, 이를 후인 11월 2일 심장이 스스로 제 기능을 해 에크모를 이탈하고 11월 4일 일반병실로 전실해 건강을 회복하고 11월 10일 조선대병원에 도착한 지 11일 만에 퇴원했다.

김모씨의 경우 초기 응급조치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뇌 손상 등 별다른 합병증은 없었고, 영양상태도 좋아 빠른 기간 안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심정지 발생과 동시에 심폐소생술이 지체 없이 이뤄졌고, 조선대병원으로 빠른 전원이 이뤄져 CPR, 에크모를 통한 ECPR,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등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졌기에 귀중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앞서 받은 저체온요법과 지속적 정정맥 혈액투석여과법(CRRT)도 뇌와 신장의 손상을 막는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 2016년 11월 입사자

- 신규 임용자 (11월 1일) - 5명
  - ◇ 간호사 4명 (탁수안, 신금석, 고수연, 송예슬)
  - ◇ 약사 1명 (이정훈)

## 2016년 12월 입사자

- 신규 임용자 (12월 1일) - 8명
  - ◇ 방사선사 8명 (이인교, 류리수, 김명진, 김세환, 윤수현, 조무강, 박명선, 최인영)

## 조선대병원 기부금 약정현황 (2016. 10. 27. ~ 12. 31.)

(단위: 원)

번호	소 속	성 명	약정금액	누 계
1	동문(의대 1회)	김만달	10,000,000	10,000,000
2	동문(의대 23회)	노 경	1,078,000	1,629,800
3	동문(의대 24회) Home Coming Day		20,000,000	20,000,000
4	기 업	KTcs	3,000,000	3,000,000
5	환 자	송현중	150,000	150,000
6	안 과	김성택	10,000,000	11,970,800
7	총무부	유준기	1,000,000	12,031,680
8	총무부	안희정	3,000,000	8,373,560
	합 계		48,228,000	

◆ 조선대학교병원 '외래진료센터' 건립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외래진료센터 건립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 참여방법 : 10만원 이상 참여 가능하며, 입금 후 기확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납부방법 : 온라인입금 또는 직접 납부

- 온라인입금계좌

광주은행 002-107-000819, 예금주 : 조대병원  
농협중앙회 605-01-009496, 예금주 : 조대병원장

- 직접 납부

조선대학교병원 기확실(10층) 방문

★ 문 의 : ☎ 062) 220-3732 Fax. 062) 227-3215  
조선대학교병원 기확실 발전기금담당

※ 해 락 :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이며, 국가가 인정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부자에 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건학 100년의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조선대학교 CU Again 7만 2천 발전기금 모금

## 참여방법

- www.chosun.ac.kr/fund 에서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에서 총 1만원 이상 자의의해와 일사납 선택 기재
- 약정 후 우편, 팩스, 조선대학교 본관 2층 홍보팀 방문 접수
- 일시납 계좌 : 광주은행 1107-020-110134 (조선대학교 CU Again 7만2천 발전기금)
-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조선대학교 기부자 예우 기금이 따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총무팀 발전기금 담당  
TEL 062)230-6235 FAX 062)232-8977



조선대학교발전기금 www.chosun.ac.kr/fund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